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들

(마 12:46-50)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때는 예수님이 집을 떠나 사역을 하신지 몇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런 저런 소문을 듣고 걱정을 하던 중 마침 예수님이 집 가까이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어머니를 무시해서도 동생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고 가족을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는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찾아온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50절).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등록하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여 누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눅 8:21).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하십니다(49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막 10:28).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업도 재산도 심지어는 가족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좇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 10:29-30).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넘어 내세의 영생이 보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금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다시 가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므로 내세의 영생을 보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Jesus' True Families

(Matt 12:46-50)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When Jesus taught the crowd at Capernaum, Jesus' mother and brothers came to speak to Him. It was a few months passed since he had left his home and started his mission. It was quite natural that his family went to him when they heard that Jesus was near their home. They heard and worried about the rumors related one thing or another about Jesus. However, He replied, "Who is my mother, and who is my brother?"

And there, in the bible it is written that he never ignored his mother or he never thought his brothers were not important. It is Jesus who obeyed his parents better than anyone else, served his parents with devotion, and valued his family from an infant.

The reason why Jesus said, "Who is my mother, and who is my brother?" is that he wanted people to know the fact that the family was a deeply lovable community was more important than the blood ties. Moreover, at the moment of his family came to meet him, he wanted to teach the spiritual truth to those who had listened to the God's word.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are my brother, sister, and mother" (v.50).

Whoever wants to be in the family of Jesus can be his family. But anyone who enrolls in church and becomes a Christian cannot always become a Jesus family. The true family of Jesus must hear and obey God's word (Luke 8:21).

Jesus taught the crowd and said, pointing to his disciples, "Here are my mother and brothers"

(v. 39). Who were Jesus disciples? They left everything for their self interest to follow Jesus. "Peter said to him,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Mark 10:28). Peter confessed that all of Jesus disciples including Peter gave up their job, property, and even their family to follow him.

"I tell you the truth, Jesus replied, no one who has left his home or brothers or sisters or mother or father or children or fields for me and the Gospel will fail to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in this present age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Mark 10: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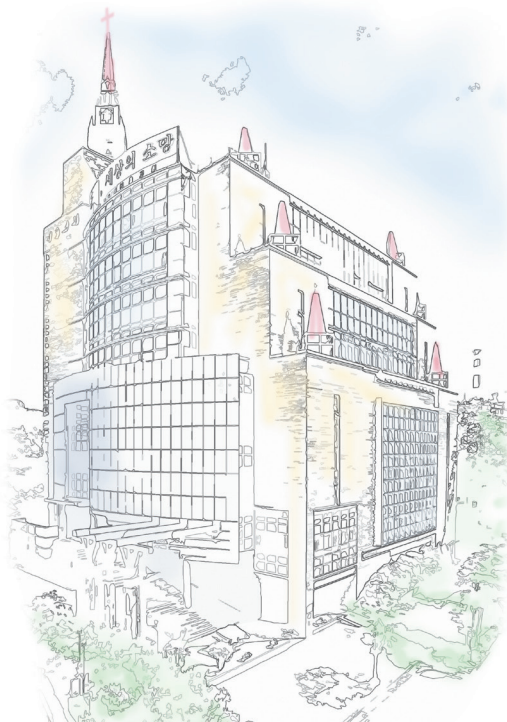
Whoever gives up himself and follows Jesus is guaranteed eternal life in the age to come, over the worldly happiness.

My beloved Christians,

When we enter the kingdom, we will not meet our husband and wife, and children, as a family but all of us will meet as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And what we, the family that we became by Jesus blood, look for is not the worldly success and happiness but we achieve God's will.

Everyone who became family in Jesus Christ should hear God's word and obey it. By hearing an obeying Gods words,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uaranteed the eternal life in the age to com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찬양대원 세미나 및 연합기도회

## 4월 8일(화) 오후 7시 30분 - 웨스트민스터홀



강사 민인기 교수

서울교회 찬양대원의 자질과 실력 향상을 위한 찬양대원 세미나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4월8일(화) 저녁 7시30분부터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이날 강사는 민인기 교수(수원 시립합창단 지휘자, 무학교회)가 선다.

강사 민인기 교수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후, New York University에서 합창지휘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합창지휘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세계적인 합창지휘자 William Dehning 교수의 지도아래 합창지휘법을, 합창지도법의 권위자인 David Wilson 교수에게서 합창지도법 등을 수학하며, 합창지휘 전공으로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무학교회를 섬기고 있다. 우리 교회 9개 찬양대 및 그레이스 핸드벨, 아멘관현악단 대원 모두 필히 참석하기 바란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24)

(문 124) 열왕기하에는 왜 므낫세의 회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까?

(답) 역대하33:13-16에는 므낫세왕의 회개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 므낫세는 자신의 악한 통치기간 동안에 그가 미워하고 조롱했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를 풀어 주셨습니다. 15-16절에 의하면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쌓았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고 도성에 있는 이방제단들을 성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는 모세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 시켰고 하나님과 회복된 교제를 하는 중에 그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 악한 왕이 마침내 회심한 이야기가 왕하21장에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하21:1-9은 므낫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5절에서는 하나님의 엄격하신 심판이 므낫세의 악함 까닭에 예루살렘과 남 왕국에 내리는 것이 말씀되었습니다. 16-18절에서는 므낫세 통치기간 동안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것과 죄악이 언급되고 그가 죽기 전에 회심했다는 기록 없이 조상들과 함께 자매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왕하21장에 그의 긴 치적을 말하면서 회심했다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열왕기서의 기록자의 관심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어떤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국가 또는 단체의 하나님 언약에 대한 책임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기간 유대 나라 전체가 영적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혁하고 회복했다 해도 이것은 백성에게 내릴 진노를 막기에 너무 적고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계자인 아들 아몬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은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전에 행했던 것과 같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는 그 도성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587 B.C의 재앙이 똑같이 그들에게 임한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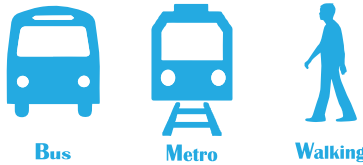
그러나 역대기의 기록자는 왕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왕상 15:9-24에서 아사의 통치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짧게 기록하고 사적 관심을 길게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역대하13:2-20에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이긴 기사를 길게 했으나 열왕기에서는 완전히 이 얘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어떤 사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기록자의 관심과 강조하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 B.M.W.운동, 계속 동참합시다

## 강남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적극 이용토록 - 140대 무료 주차가능

도심지 건물의 주차난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교회도 대치동 이전 이후 원활한 주차를 위해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차량 숫자를 감당하기 위해 금년부터 새로이 B.M.W.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회 1층, 지하 1,2,3층 주차장 이외 주일 삼성로변과 강남구민회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교회 인근 청실 아파트 재건축 현장 주위 이면도로변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도들의 협조로 차량관리부 주차 봉사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새가족들과 교통 약자들을 위해 모든 성도가 아래와 같이 B.M.W.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 1) BMW 운동은 주일예배에만 적용하며 연중 실시한다.
- 2) 교통약자 성도들과 새가족 차량을 최우선으로.
- 3) 교회 인근 지역 거주 성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교회에 오기 바란다.
- 4) 차량운전 성도들은 강남구민회관 지하 주차장을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
- 5) 항존직 성도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 봄맞이 지하주차장 대청소

## 4월 5일(토) 오전 9시

우리교회 스테반회(회장 최차순 집사) 주관으로 봄맞이 지하주차장 대청소를 한다. 겨우내 차량에 묻어 들어온 흙먼지와 염화칼슘으로 더러워진 지하주차장 바닥을 물로 닦아내며 각종 오물을 청소한다. 스테반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 교구위원회 헌신예배

## 오늘 찬양예배 시

교구위원회 헌신예배가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있다. 모든 교구일꾼들의 참여를 바란다.

- 찬양연습 : 30일(주) 오후 3시30분, 본당
- 대상 : 교구지도목사,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명단

강수용 이주연 윤미란 (3월23일 추가)



#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 2014 여름단기선교팀원 모집 중





시간은 빠르게 흘러 올해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8년차가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며, 건강한 아이 보화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관계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계발로 때론 지치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예수님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도전받게 됩니다. 남들이 인정해주건 그렇지 않건, 힘들거나 기쁜 이런 감정들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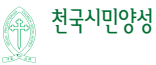
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젠가 저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지막히 헨델의 “주의 영광”을 들어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렵게 느껴질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내가 세상을 바꾸는 엄마다!



정호의 집사 (1교구)

저는 고3 엄마입니다. 온갖 물질과 정성을 들이는 걸 수고로 여기지 않는 고3 엄마입니다. 고3 엄마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며 믿지 않는 엄마와 별반 다르지 않게 지내고 있을 때, 차인화권 사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세.바.맘.에 같이 참여하자구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5명의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세.바.맘. 교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세.바.맘)-“고등부 엄마들과 함께 떠나는 7주간의 신약성경여행”이었습니다. 안내자는 고등부 담당이신 천세종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간 첫날부터 의자 놓을 공간이 부족할만큼 어머니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나쁜 시간인 주일 오후 2시임에도 목사님의 재치있는 유머로 우리는 까르르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막 돌아온 지금 제 가슴은 벅차며 내면엔 변화의 바람이 일렁임을 발견합니다. 매 시간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듯 함께했던, “주님! 제가 세상을 바꾸는 엄마입니다” 라는 외침이 울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내가 세상을 바꿔! 아들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소개하시는 복음서에 나오는 엄마들 혹은 여인들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하며, 질문이 생기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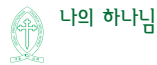
질문이 깊어지면 진리에 더 가까워진다는 목사님의 격려속에 내가 곧 복음서에 나오는 엄마가 되어 질문하고 그녀가 곧 내가 되어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물들은 성경속에 얽매어 있는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가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질문을 합니다. 자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오로지 본인의 성공만을 위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같이 나눠먹는 삶으로 이끌 것인가?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는 무관하게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이끌 것인가? 믿는 자로서 어머니로서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지금 자녀의 모습은 내 반응의 결과라는 가르침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작은 여기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실패가, 위기가, 좌절이,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긴다는걸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을 겪으면 같은 아픔에 처해있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파하는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될수있는 자녀,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울 수 있는 자녀. 이 작은 시작에서 세상을 바꾸는 자녀가 나옴을 깨닫습니다. 결국 이 자녀들을 이끄는 이는 바로 우리 엄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엄마입니다.



## 멀리 있어도

박정선 장로 (11교구)

지난 2월에서 3월에 걸쳐 딸의 작곡발표와 세미나 특강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후 워싱턴 지역에 이주해 사는 서울교회의 성도님들과 연락이 닿아 함께 기도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승현, 홍순일집사님 내외와 정동호 집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이 모여 시편 23편을 함께 읽고 “내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김승현집사님 내외는 서울교회 논현동시절부터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봉사하셨고 정동호 집사님은 교회학교와 청년부, 교회 기록 사진 촬영 등 많은 부서에서 봉사를 하시던 분들이셨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만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는 동안 우리들은 감사와 감격에 눈시울을 적시며 서울교회를 그리워 하였습니다.



다락방 이야기

이  
왔어요



장애순 권사  
(9교구)

"새봄입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세요!! 내일 다락방 모임 11시 베델하우스에서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영희 올림"

언제나 목요일이 되면 다락방장님의 다락방 예배 초청이 9교구 1다락방 가정 가정에 전달됩니다.

저희 다락방은 서울교회에서는 좀 떨어진 경기도 북동쪽에 위치한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그리고 더 멀리는 강원도 춘천, 원주까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예배에 참석하는 다락방 식구들 모습이 매주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락방장님과 언제나 참석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매주 약 1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베델 하우스에서 만나자 마자 서로서로 손을 잡고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로 인사를 나누며 잠시 후 다락방 나눔지를 가

지고 성경공부를 합니다. 때로는 야곱의 이기적인 행동에 혀를 차기도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고개를 숙이기도 하면서 모두모두 성경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경공부가 끝날 즈음이면 다락방 기도제목들을 읽으며 기도를 합니다. 9교구 11다락방에 속한 36개의 모든 가정을 위해, 한 가정도 빠짐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들을 살살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베델하우스는 더욱 더 활기를 띠고 흥분된 시간으로 변해 갑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점심식사를 대접하시는 손길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갓 따온 상추쌈 등으로 차려진 식탁은 화려하진 않지만 언제나 정성 가득 담긴 애찬입니다.

오늘도 금요일, 저는 교사로 재직중이어서 방학때나 되어야 다락방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만 아마 오늘도 베델 하우스엔 향기로운 커피향과 함께 다락방 식구들 웃음소리가 가득할 거예요. 9-1 다락방 식구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유영순 성도 (1교구)

사랑하는 아들 현준아,

현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구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 달라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훌륭하신 선생님과 착한 친구들 만나게 해 주셔서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

현준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벗어나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 교육에 발을 딛게 되다니 엄마는 가슴이 벅차기만 하구나. 자유분방했던 유치원 시절과는 다르게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고, 쉬는 시간에만 화장실에 가야 하고 또 전혀 아프지 않았던 현준이가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입안이 험기기도 하고, 피곤해 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환경이 즐겁기도 하지만 나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엄마가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한단다.

하지만 엄마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 현준이는 즐겁고 행복하길 바란다.

엄마가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현준이에게 강한 힘을 주세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지혜로운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 부부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항상 사랑과 명철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현준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현준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1 다락방 식구들

동 정

■ 이중윤 원로목사는 31일(월) 장로교한교단다체제(연합장로교회) 기입 청원한 교단장초청간담회를 갖는다. 4월5일(토) 사랑의 쌀운동과 몽골 울린바타르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주간식당봉사 : 이삭선교회 리빙기전도회(3.30) 빌립선교회 도르기전도회(4.6)

■ 금주의 식사 : 남일환 집사 송동선 권사 가정 홍성배 성도 박중녀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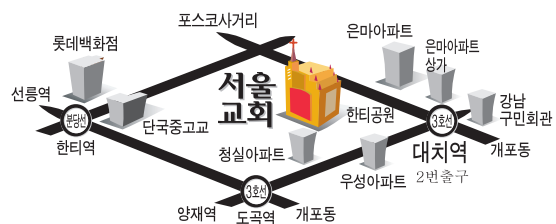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아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절제와 희생의 삶을 살도록
2. 완연한 봄을 맞이하며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도 새로운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해지도록
3. 계속되는 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와 지역사회의 덕을 이룰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 당<br>II, III, IV 층 |
|           | II 부 예 배<br>(영아동시동역)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15분 |                      |
| 수 요 예 배   | 젊은이 예배               | 오후 1시 30분  | 본 당<br>II, III 층     |
|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
| 새 벽 예 배   | 오전 5시 30분(매일)        | 본 당 II 층   |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8시                |            |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